

#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있어 신용할당행태와 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

이 수 호\*

## A Study on the Credit Rationing in Bank Loan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oo-Ho Lee

### Abstract

In Kore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tand in disadvantageous position for lending bank credit. It is basically caused by government's economic policy putting large enterprise first. And another reason is tha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ave weakness in financial structure and salesize-growthness. And they have not sufficient mortgage for lending. They are low-profitable, slow-growing, unstable and risky. These several reasons mak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be rationed in bank credit.

In the process of liberalization and deregulation of financial industry, various types of credit rationing may come out. The regulated credit rationing as policy loan might be disappeared, but credit rationing from imperfect information, customer relation and mortgage-equity offering, etc. may appear. These kinds of credit rationing help banks improve their profitability and stability in lending. Bu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disadvantageous as before.

In this thesis the present state of bank loan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analyzed. And credit rationing in bank loan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investigated. Finally, the desirable plans for increasing bank loan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researched.

---

\*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상학부 부교수

## 1. 서 론

금융자율화와 자본시장 개방이라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의 은행들은 합병이나 증자를 통한 규모의 확대, 업무영역의 다양화를 통한 각종금융기능의 구비, 조직이나 인력의 재정비를 통한 생산성향상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병행해서 무엇보다도 중요시되어야 할 과제는 은행경영관행의 개선, 즉 은행의 각종 금융활동행태의 변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타율적이고 정책적인 신용배분과 담보에 의한 안이한 채권확보, 불안정적인 유가증권투자의존 등과 같은 금융관행을 탈피하고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대출부문에 적용한다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각종 기업의 건전성과 성장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분배하고 채권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출대상기업의 평가에 있어 현재의 재무지표보다 미래의 성장성을 중시하는 동태적 신용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채권의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단순한 대출재심사(loan review)가 아니라 대상기업의 실물경쟁력과 재무건전성제고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의미에서의 주거래은행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은행금융기관들이 앞으로의 대출시장에서 비중을 높여 가야 할 분야는 중소기업대출부문이다. 중소기업부문대출은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교할 때 지금까지 부족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정부의 대기업위주 성장정책과 만성적인 자금초과수요, 중소기업의 성장성·담보부족등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대기업의 자본축적이 원활히 진행되어 내부금융의 비율이 높아졌고 외부금융에 있어서도 직접금융과 해외금융에 크게 의존할 수 있게 되었다.<sup>1)</sup> 따라서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은행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건전한 대출시장을 중소기업금융이나 가계대출등 소매금융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구조고도화에 따라 새로운 산업의 성장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중소기업들이 새로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부문의 이중구조화와 부문간 격차심화과정을 거쳐 성장중소기업만이 생존하는 중소기업부문의 체질개선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은행의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활동은 중소기업과의 대고객관계를 강화하여 장기적인 대출운용에 있어 수익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기반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그 분야가 다종다기하고 생산·영업·재무 활동 등에 있어 각 기업마다 특수성이 다양하다. 따라서 은행이 독자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과정에서 노하우를 축적한다면 타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서 장기적인 대고객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대출은 지금까지 정책금융의 중요한 대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아직 정부정책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규제와 지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효율화하는 과정은 금융자율화와 더불어 정부의 규제와 지원이 재정비되는 과정을 보완해 가는 형태로 진행

1) 대기업의 경우 외부금융이 1979~83년간 평균 72.5%를 차지하였으나 1993년에는 43.9%로 낮아졌다. 그 중 간접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13.7%에 불과하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1994.)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금융자율화단계의 중소기업금융에 있어 정부·은행·기업의 역할분담과 관계설정이 효과적으로 재정립되고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율화된 금융시장의 은행대출에 있어 발생하게 되는 각종 신용할당행태-정보불완전, 신용위험, 대고객관계, 지분·담보에 의한 할당-등의 특성을 연구·분석하고 중소기업대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신용할당이 무엇이며 이것이 은행과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비한 경영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화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있어 발생하기 쉬운 신용할당행태와 그 효과에 관해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 2. 은행의 대출구조와 신용할당

### 2.1 은행의 대출구조변화

경제성장과 자본축적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 내부자금조달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외부자금조달에 있어서도 직접금융시장의 성장으로 간접금융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이 대기업의 자금조달이 자본시장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은행대출공급은 자금부족으로 부도율이 높았던 1994년에 있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금융자율화에 따라 은행의 자금조달능력은 증대되었으나 높은 조달원가로하여 수익성과 안전성이 낮은 중소기업대출을 기피하게 된 데 연유한다. 실제로 제1금융권에 대한 금융상품의 규제완화로 표지어음대출 등 신금융상품이 도입되고 CD발행한도확대 등에 따라 1994년중 예금은행자금조달은 전년의 20조원에서 40조 6천억원으로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의 23.4%에서 34.2%로 크게 높아졌다. 그런데 예금상품구성비를 살펴보면 표지어음, CD 등 시장금리상품의 비중이 늘어나 은행의 자금조달원가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금운용의 수익을 보장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회사채 유통수익율이 중소기업 대출금리보다 훨씬 높아<sup>2)</sup> 은행은 대기업 회사채 매매나 국공채·주식 등 유가증권 매매업무로 자금운용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은행의 유가증권투자는 증권시장의 변화에 따라 은행경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며<sup>3)</sup>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의 자금조달을 유리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 자금의 편중현상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자금조달을 어렵게 한다.

2) 은행의 중소기업대출금리를 보면 현재 신용도에 따라 9.0%~11.5% 사이에서 결정되는 밴드제로 운용되고 있다.

3) 실제로 1995년도에는 주식시장침체로 각 은행은 유가증권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표 1〉 7개 시중은행의 유가증권 투자비율 추이(평잔기준)

		91년 평균	94년 평균			91년 평균	94년 평균
은행계정	총자산	126,064	180,991	대출금		46,239	67,983
	유가증권	16,959	26,603	유가증권		16,959	26,603
	비율	13.5	14.7	비율		36.7	39.1
신탁계정	총자산	31,477	79,948	대출금		13,964	27,633
	유가증권	15,575	47,233	유가증권		15,575	47,233
	비율	49.5	59.1	비율		111.5	170.9
합계	총자산	157,542	260,939	대출금		60,203	95,616
	유가증권	32,534	73,836	유가증권		32,534	73,836
	비율	20.7	28.3	비율		54.0	77.2

자료: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1, 1994.

## 2.2 자율화하의 신용할당 행태

은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규제가 철폐 내지 완화되면 규제하의 신용할당과는 다른 새로운 신용할당행태가 나타나거나 기존의 몇몇 신용할당이 보다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신용할당행태들은 자율적인 은행경영에 있어 은행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거나 수익성을 제고시키며 장기적으로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주려는 동기에서 활용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신용할당이 은행의 금융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소극적으로 만들고 경쟁상태의 금융시장에 있어 은행의 지위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나타나는 은행의 신용할당행태는 그 원인과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율화 이전의 신용할당행태는 정부의 강제적 금리결정과 자금배분이라고하는 타율적 신용할당과 여기에 수반하여 나타난 외생적 제약하의 신용할당이나 담보에 의한 신용할당 등이었고 그 외에 대고객관계에 의한 신용할당이 여신관리제도의 영향으로 병행해서 나타났다.

자율화이후에는 이러한 타율적 할당이나 그에 수반되는 비효율적인 할당행태가 줄어들고 은행의 적극적인 자금조달과 운용과정에 있어 수익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할당행태가 변모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율화하에서는 자율적 신용할당 중 특히 신용기준에 의한 신용할당이나 우량고객 또는 L\*예금에 대한 신용할당, 차입자지분에 의한 신용할당, 암묵적 계약에 의한 신용할당 등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되고 따라서 그것이 은행의 최적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sup>4)</sup>

4) 신용할당행태의 다양성에 관해서는, 필자의, 한국은행대출시장의 신용할당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pp. 13~72. 참조.

### 2.2.1 요구불예금에 근거한 신용할당이론

대출결정에 있어 고객관계의 중요성은 Hodgman에 의해 제기되었고 그 이후 Kane, Malkiel, Mason 등에 의해서 우량고객관계를 중심으로 한 신용할당이론이 전개되었으며 최근 Blackwell, Santomero 등은 비우량고객관계를 중심으로 대출결정이론을 전개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고객간의 거래기간, 친숙도 등의 관계가 신용할당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업무는 요구불예금이나 당좌대출 등과 상호연관되며 이를 통해 대출실효이자율을 상승시킨다. 그리고 새로운 고객에 대해서는 신용조사에서 수반되는 직·간접비용이 발생하므로 금융인축시에는 거래기간이 길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고객이 우대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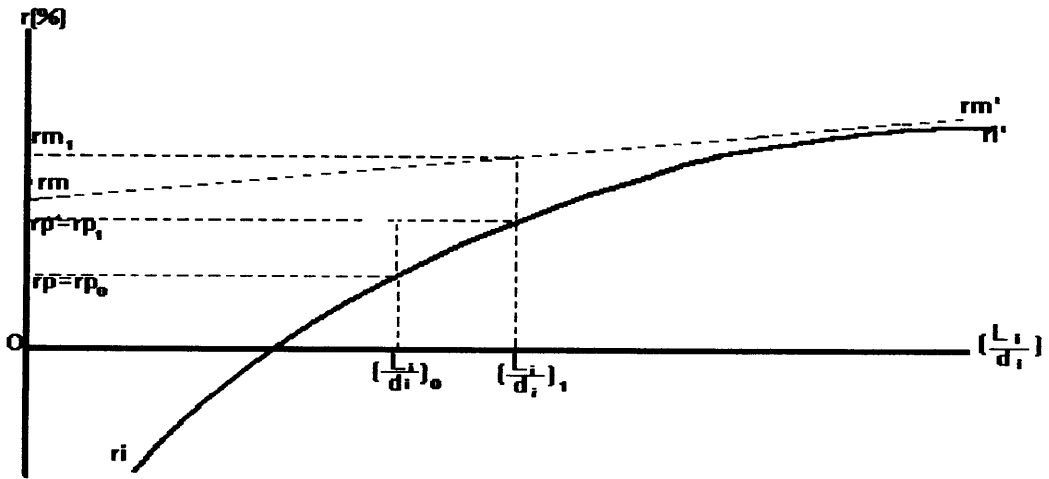
Hodgman은 은행의 대고객관계중 제도적·구조적요인에서 비롯되는 은행과 고객간의 예금관계, 특히 요구불예금 관계를 중심으로 신용할당을 설명하였다.<sup>5)</sup> 요구불 예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자지급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은행간 예금확보 경쟁이 치열하고 이에 따라 은행은 그 보상으로 금융인축시 대부자금을 안정적인 예금고객에게 배분하며 그 과정에서 예금유치에 별유인을 갖지 못하는 비우량 고객에 대해서 신용할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은행은 예금확보경쟁에 있어서 예금 차입자에 대해서는 비예금차입자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시켜 고객을 유인하는데, 경쟁결과 합의되는 이 우대금리는 비예금고객에게 지급되는 시장금리에서 예금으로부터 얻는 순수익을 공제한 것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고객  $i$ 의 평균요구불예금액을  $d_i$ , 예금의 인출시에 은행이 부담하는 활동비용을  $c_i$ 이라하고, 고객  $i$ 의 예금 중 수익자산에 투자할 부분의 비중은 은행의 총수익자산 / 총예금액, 즉  $L/D$ 의 평균비율과 같다고 한다. 그리고, 이자율을 시장이자율  $r_m$ , 최저대출 이자율  $r_i$ , 우량금리  $r_o$ 라 할때 비예금차입자에게 적용되는  $r_m$ 과 예금차입자에게 적용되는  $r_i$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존재한다.

$$r_i = r_m - \frac{r_m d_i (L/D) - c_i}{L_i} \dots \dots \dots (2-1)$$

여기서  $L$ 은 총대출금,  $L_i$ 는  $i$ 번째 예금차입자에 대한 대출액이며 우변의 둘째항의 분자는  $i$ 번째 예금주로부터 얻는 은행의 총수입이 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와 같다.

여기서,  $L_i/d_i$ 가 증가함에 따라  $r_i$ 는  $r_m$ 에 점진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대  $r_m$ 과  $r_i$ 사이의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다면 은행은 예금획득을 위해서 실제대출이자율  $r_m$ 이  $r_i$ 에 이르기까지 낮추어 은행의 순수입이 0이 될때까지 경쟁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5) Modigliani, D.R., " The Deposit Relationship and Commercial Bank Investment Behavior ",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 1961, pp.257-268.



〈그림 1〉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에 대한 대출

위하여 우대금리  $r_b$ 가 하한으로 결정된다. 만일 우대금리가  $r_{b_1}$ 에서 결정되었다면 비예금차입자에게는  $r_{m_1}$ , 예금차입자에게는  $r_{b_1}$ 으로 이자율이 적용되고 비예금차입자에 대한 대출과 같은 정도의 수익을 보장하는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가능액은  $L_1$ 이 된다. 이와 같이 일단  $r_b$ 가 어느 수준에서 정해지면 비예금차입자에 대한 시장이자율로의 대출과 적어도 같은 수익성이 있는 대출이 되기 위한 대출액對 예금액, 즉  $L_i/d_i$ 의 비율에는 상한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고객  $i$ 가  $L_0(L_0 < L_1)$ 의 대출을 받는다면 이 대출은 시장이자율에 의한  $L_0$ 만큼의 대출보다  $\overline{r_{b_1} r_{b_0}}$ 만큼 은행이 유리하게 된다. 이러한 이자율차이는 고객  $i$ 의 평균적인  $L_i/d_i$  비율에 의존하는 것이며 예금자마다 이 비율은 달라지므로 은행의 순수입은 우량기업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은 은행간 경쟁을 심화시키며 결국  $L_0$ 차입자에 대한 다른 은행의 추가 대출제안 유인이 발생하므로 고객상실의 위험이 있게 된다. 따라서 결국  $L_1$ 수준에서 대출이 결정된다.

현실적으로 우대금리는 단일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우량기업 중에서도 은행이 특히 선호하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며, 이들의 예금에 대해서는 은행들은 여전히 우대금리 이상에서 경쟁하게 된다. 따라서 우대금리를 설정하여 차입자의 예금에 대한 은행간 경쟁을 제한 하려는 시도는 완전하지 못하여 여기에 구속성 예금의 최소한도가 정해져야 실질적인 이자율인하의 최대한도가 제한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은행은 우량고객에게 기타서비스를 제공하여 비가격경쟁

을 시도하며, 이에따라 긴축시에 우량고객들이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받게 되는 것이다. 예금차입자가 추가적인 대부를 원하거나 보상적예금잔고의 한계점에 도달한 한계우량고객이 있다고 할 때 만일, 금융긴축시기가 아니라면 은행은 적정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우대금리수준에서 한계우량고객에게 대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2.2 $L^*$ 예금에 근거한 신용할당이론

Kane과 Malkiel은 Hodgman과 달리 복합적으로 고려된 고객관계가 은행의 장기적인 효용측면에서 선별되어, 은행의 효용을 높이는 고객에게 대출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sup>6)</sup>그들은 은행의 포트폴리오모형에 예금변동가능성과 장기적 이윤에 대한 고려를 도입해  $L^*$ 의 정도에 기인한 신용할당을 설명하였다. 즉  $L^*$ 대출을 기준으로  $L^*$ 대출에 대한 요구를 거부할 때 총체적위험, 즉 기대이윤의 분산이 커지고 장·단기 기대이윤수준이 하락하게 된다. 이는  $L^*$ 대출이 관련된 예금차입자를 상실함에 따라 장기적 예금을 상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은  $L^*$ 정도에 의거해  $L^*$ 정도가 낮은 고객에게는 신용을 할당하는 것이다. 즉, 이들은 Hodgman의 신용위험은 총체적위험의 한 부분일 뿐으로 대출거부에서 발생하는 고객관계 단절의 위험이 더 커다란 문제가 되므로 긴축시에는 은행이 자금을 일군의 안정적인 대규모 예금거래자에게 재배분한다는 것이다. Kane과 Malkiel은 예금액변동이 총체적 위험을 늘린다고 주장하고 예금액변동에 따른 자산의 획득 및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거나 예금액유입과 자산수익율이 서로 반비례한다면 예금액변동은 기대이윤수준도 감소시키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L^*$  예금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서  $L^*$ 예금이란, 예금액의 현재규모, 앞으로의 증가전망, 예금액변화의 예상패턴, 예금의 거치기간, 거치의 강도, 경기변동에 따른 고객의 평균적 차입액의 기대치, 고객에 대한 은행의 대출잔액과 은행대출에 대한 총체적 초과 수요간의 상관계수등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된 벡터로서  $L^*$ 대출에 직면한 은행이 자산의 위험·효용측면에서 가장 중시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L^*$  대출요청자란 은행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예금자인 동시에 차입자이며, 이들의 행동은 은행의 기대 이윤 및 총체적 위험에 증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L^*$ 대출에 대한 은행의 판단에 있어서는 대출을 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자소득과 고객관계의 강화에서 얻어지는 이윤이 대출액/정부증권 투자액의 비율의 증가에서 오는 위험의 증가를 상쇄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은행이라면  $L^*$  대출요청자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대출요구이전보다 명백히 효용이 낮아진다해도 대부거절 역시 효용을 감소시키게 되므로  $L^*$  대출요청에 응하는 것이다.<sup>7)</sup>

6) Kane, E.J. & Malkiel, B.G., "Bank Portfolio Allocation, Deposit Variability and the Availability Doctrin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Feb., 1965, pp.113-134.

7) 대출을 허가하는 경우 실제로 기대이윤상승 및 총체적 위험의 감소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이 경우 고객관계 단절에서 오는 위험이 실제로 대출을 하는데서 오는 위험을 초과하게 된다.

$Q_{i_0}$  를 은행고객관계를 나타내는 질적 지수라 한다면 대출은  $Q_{i_0}$ 를 강화시키고 대출거부는  $Q_{i_0}$ 를 약화시켜  $L^*$ 예금의 기대수익, 분산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frac{\partial E_i}{\partial Q_{i_0}} > 0 \quad , \quad \frac{\partial \sigma_i^2}{\partial Q_{i_0}} \leq 0 \cdot \cdot \cdot \cdot \cdot \cdot \cdot (2-2)$$

여기서  $E_i$  는 고객  $i$ 의 예금의 기대치 이고,  $\sigma_i^2$ 은 고객  $i$ 의 예금의 기대분산이다.  $U$ 를 은행의 자산구성에 따른 효용함수라 하면,

$$\frac{dU}{dQ_{i_0}} = \frac{\partial U}{\partial E_i} \cdot \frac{\partial E_i}{\partial Q_{i_0}} + \frac{\partial U}{\partial \sigma_i^2} \cdot \frac{\partial \sigma_i^2}{\partial Q_{i_0}} > 0 \cdot \cdot \cdot \cdot \cdot \cdot \cdot (2-3)$$

이 성립하여 고객관계 개선에 따라 은행은 명백히 유리해진다. 대출요구가 거절되면  $Q_{i_0}$ 가 약화되어 예금액의 변동정도가 더 심해져 전체예금액의 분산이 증가하여 결국 총체적위험이 증가하므로 기존자산구성의 효용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대출이 증가하면 대출액 / 정부증권투자액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하게 되어 은행의 효용은 감소한다. 이와같이 은행이  $L^*$  대출요구를 받게 되면 은행의 기존균형상태는 깨어진다. 대출거부의 경우 고객상실로 효용이 감소하며, 대출을 할 경우도 위험/이윤 비율이 높아져 어느 경우든 교란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 대출여부의 결정은 은행의 효용함수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L^*$  대출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고객관계의 단절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다. 현재의 자산보유기간 종료에서부터 최종계획시계의 종료까지를 장기라 하고, 각 보유기 ( $h=1,2,\dots,u$ )에 정부증권의 수익율은  $g_u$ 라 하며,  $h$ 기의 고객  $i$ 가 가진 예금액의 평균잔고가  $D_{ih}$ 라 한다면 장기기대이윤  $E(L, R, \Pi_i)$  는

$$E(L, R, \Pi_i) = \int_0^\infty \sum_{h=1}^u (g_h) \cdot D_{ih} f^D(D_{ih} | Q_{i_0}) dD_{ih} = \sum_{h=1}^u g_h \cdot E(D_{ih} | Q_{i_0}) \cdot \cdot \cdot (2-4)$$

(단,  $f^D$ 는  $D_{ih}$ 의 밀도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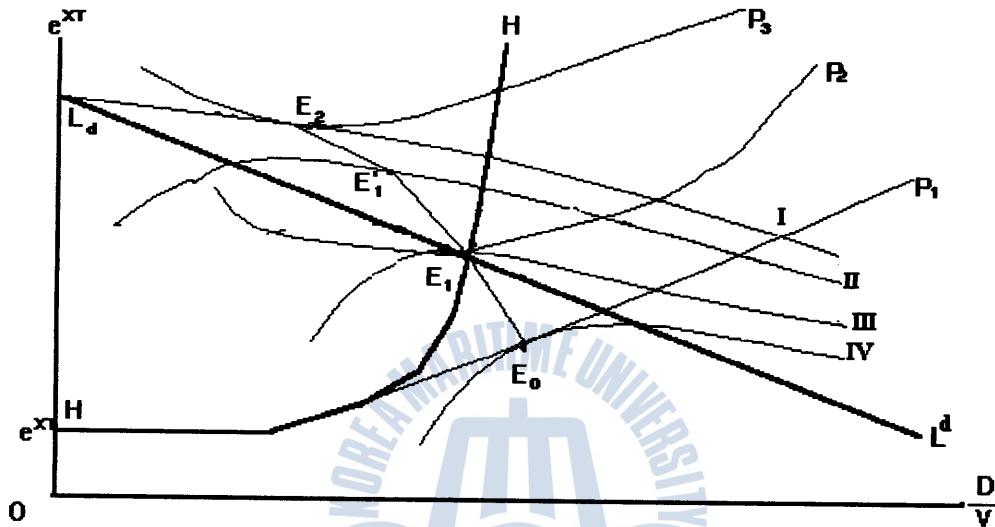
$D_i$ 가  $\alpha_i$ 의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면, (2-4)식에서

$$E(L, R, \Pi_i) = \sum_{h=1}^u g_h (1 + \alpha_i)^h D_{i0} = D_{i0} \sum_{h=1}^u g_h (1 + \alpha_i)^h \cdot \cdot \cdot \cdot \cdot \cdot \cdot (2-5)$$

가 된다. 장기적으로는 실제 적용되는 수익율이 대출 및 정부증권 수익율의 평균치가 되므로 (2-5)식은 장기적 이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예금자  $i$ 에게 대출을 거부하는 경우 모든  $h$ 에 대하여  $Q_{ih}$ 는 하락하므로 장기적 기대이윤가치는 하락하며, 그 정도는 고객  $i$ 의 예금잔고



의 기대성장을  $\alpha_i$ 에 비례한다. 결론적으로  $L^*$  대출요구에 대한 거절은 단기적 이윤의 분산, 즉 총체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장단기 기대이윤의 감소를 가져 온다. 따라서, 예금 관계가 없는 일반 고객의 대출신청에 우선하여  $L^*$  대출신청에 응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긴축시



〈그림 2〉 쌍방교섭에 따른 파레토최적

$L^*$  대출신청자들 중에서도 신용어베일러빌리티가 작은 경우에는 고객관계와 장기적 이윤가능성에 의해 신용할당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Kane과 Malkiel에 따르면 신용할당의 기준은 채무불이행의 위험만이 아니라 대부거절에서 오는 고객상실위험도 매우 중요하므로 은행은  $L^*$ 특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장기적 이윤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8)</sup>

### 2.2.3 대부자·차입자 간의 교섭에 근거한 신용할당이론

Kalay 와 Rebinovitch는 은행의 증가하는 무이윤 오퍼곡선과 공급과 무관한 차입자의 선택구조에 의한 상호간의 교섭에 따라 신용할당이 나타난다고 하고 이렇게 결정된 신용할당은 은행의 시장경쟁력과는 무관하게 유일하게 결정된다고 주장했다.<sup>9)</sup>

8) 실제 이논문에서 Kane과 Malkiel이 주장하고자 한바는  $L^*$  대출의 존재에 따라 호경기의 대출억제는 매우 어려우므로 어베일러빌리티 이론에서 주장하는 동결효과는 강력하지 못하며, 신용할당이 나타나더라도 그 규모는 작다는 것이었다.

9) Kalay, A. & Rabinovitch, R. " On Individual Loan's Pricing, Credit Rationing and Interest Rate Regulation. " Journal of Finance., Sep., 1978, pp.1071-1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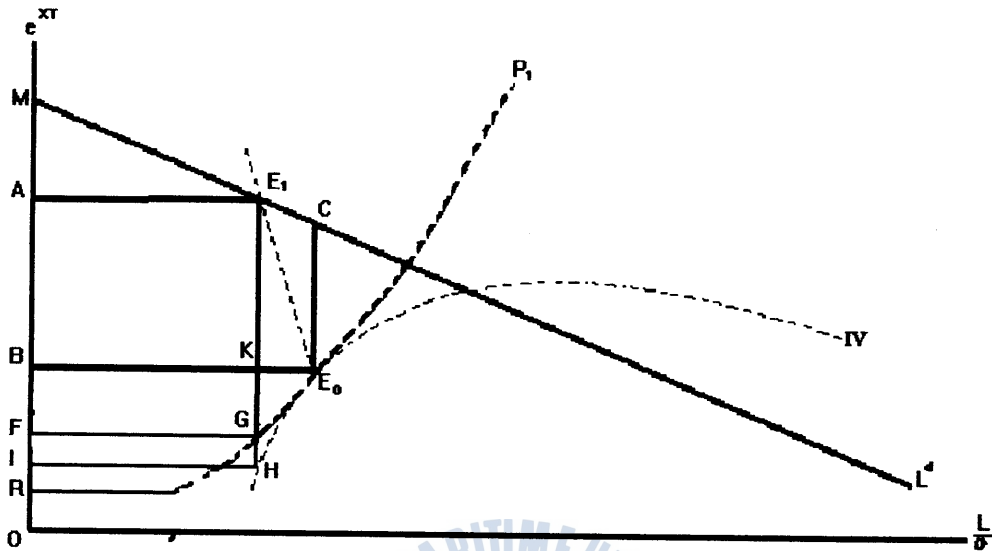
그들은 차입자의 담보대출이 유럽콜옵션 (European Call Option)과 같은 성격을 가졌으므로 옵션 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여 대부자의 기말가치 극대화 공식에서 오퍼 곡선을 도출하는데 이 곡선이 대출이자율에 대해 단조증가함수임을 보이고 있다.<sup>10)</sup> 그리고 이와 같은 특성이 나타나기 위해서 옵션가격결정모형과 같은 네가지 가정을 하고 있다. 첫째, 벌과금 없이 空賣(short sale)가 가능하며, 둘째, 거래비용, 세금, 배당금지급이 전혀 없으며, 셋째, 무위험 이자율이 존재하고 옵션시장은 연속적으로 활동하며 주가변동도 연속적이며, 넷째, 담보가치는 로그분포의 과정을 따른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 차입자는 자신의 레버리지비율과 대출이자율 요인에 관한 선호구조에 따라 우하향하는 대출수요곡선을 가진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2)와 같다.

(그림 2)에서 횡축은 차입자의 레버리지비율로서  $D$ 는 지분( $y$ )과 부채 ( $L$ )의 합을 나타내며, 종축은 이자율요인으로서  $X$ 는 즉각적인 할인을,  $T$ 는 시간단위를 나타낸다.  $P_1, P_2, P_3$ 는 대부자의 무차별곡선이며 오퍼곡선  $HH$ 와 최저점에서 교차된다.  $HH$ 는 이자율요인의 단조증가함수이며,  $I, II, III, IV$ 는 차입자의 등효용무차별 곡선으로 수요함수  $L^d$ 와 각각 극대점에서 교차한다.

Jaffee(1972)도 이와 유사한 그림을 통하여  $E_0, E_1, E_2$ 곡선을 파레토최적적이라 하였으나, Kalay와 Rabinovitch는  $E_0$ 점만이 파레토 최적이며 다른 점들은 대부자의 시장독점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보가치보다 적게 대출하게 되어 잘못된 자원배분을 초래하므로  $E_0, E_1, E_2$ 곡선을 계약곡선이라 칭하고 있다. 즉, 대출이 소득효과가 없다면 계약곡선  $E_0$ 점 이외의 점에서  $E_0$ 로 이동함으로써 대부자의 이윤은 감소시키지 않고 차입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림 3)에서  $E_1$ 에서  $E_0$ 로 이동한다면 대부자는  $AE_1GF$ 만큼의 이윤이 감소하고 차입자는  $AE_1CE_0B$ 만큼의 소비자잉여가 증가한다. 소비자잉여는 무차별곡선을 따라 불변하므로  $AE_1E_0B = AE_1HI$ 이므로 차입자는 대부자의 감소분을 완전히 보상하므로 추가적인 잉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차입자·대부자간의 교섭에 의해 완전한 보상계획이 마련된다면 시장경쟁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항상  $E_0$ 에서 대출이 행해진다.

10) Jaffee & Modigliani의 경우 후방굴절형이다.



〈그림 3〉 영구적 균형신용할당

그런데  $E_0$ 에서는 초과수요가 나타나 신용할당이 발생하며 이는 영구적 균형신용할당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자율규제는 차입자의 복지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규제설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2.2.4 담보 및 지분요구 제약에 근거한 신용할당

Azzi와 Cox는 이자율요인 외에 담보 및 차입자지분에 관한 대부자와 차입자의 반응을 고려해야 하며 담보 및 지분요구에 아무제약이 없으면 대부자가 완전차별적독점자로 행동하며 신용할당 나타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이자율제약에 추가하여 담보 및 지분에 관한 효과적인 제약이 있어야만 신용할당이 발생하며 차입자가 더 많은 담보·지분을 대부자에게 공급한다면 더 큰 대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1)</sup>

담보(C)와 차입자지분(y)을 고려한 경우, L만큼을  $\gamma^*$ 로 대부하고  $W_0-L$ 만큼을 무위험의  $\gamma$ 의 수익율에 투자한 대부자의 기말부(富)( $W_1$ )는

$$W_1 = \begin{cases} (1+\gamma)W_0 + (\sigma-\gamma)L + (1+\sigma)g + (1+\rho)C & \text{for } -1 \leq \sigma < \sigma^\wedge \\ (1+\gamma)W_0 + (\gamma^*-\gamma)L & \text{for } \sigma > \sigma^\wedge \dots \dots (2-6) \end{cases}$$

11) Azzi, C.F. and Cox, J.C., "A Theory of Test of Ceredit Rationing :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Dec., 1967. pp. 911-919

단  $\sigma$ : 차입자 사업수익율  $\geq -1$   
 $\sigma^\wedge$ : 상환불능이 아닌 최적수익율,  $\sigma^\wedge = (\gamma L - y - (1 + \rho)C) / (L + y)$   
 $\rho$ : 담보자산의 수익율  $\geq -1$

만일, 수익율  $\sigma$ 인 투자계획에 은행이 참여를 결정한다면, 기말부  $W_1'$

$$W_1' = (1 + \gamma)(W_0 - L) + (1 + \sigma)L = (1 + \gamma)W_0 + (\sigma - \gamma)L \dots \dots \dots (2-7)$$

가 되고,  $y=0, c=0$ 인 경우라면 식(2-6)보다 식(2-7)이 선호된다.

즉, 비독점적인 차입자가 대부를 얻기 위해서는 담보나 지분을 공급해야 한다.

대부자가 차입자의 투자사업에 동일한 투자기회를 갖고 대부자의 효용함수가 von · Neuman · Morgenstern 효용함수의 1,2계극대화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할 때 대부자의 효용함수는 사업수익율, 무위험수익율, 담보자산수익율의 결합분포  $g(\sigma, \gamma, \rho)$ 에 의해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U^L(W_1) = \int_{-1}^{\infty} \int_{-1}^{\infty} \int_{-1}^{\infty} U(W_1) g(\sigma, \gamma, \rho) \alpha \sigma \cdot \alpha \gamma \rho \cdot \dots \dots \dots (2-8)$$

여기서 1계 조건은,

$$\frac{\alpha U^L(W_1)}{\alpha L} = \int_{-1}^{\infty} \int_{-1}^{\infty} \left[ \int_{-1}^{\sigma^\wedge} u'(W_1) (\sigma - \gamma) g(\sigma, \gamma, \rho) \alpha \sigma \right. \\ \left. + \int_{\sigma^\wedge}^{\infty} u'(W_1) (\gamma^* - \gamma) g(\sigma, \gamma, \rho) \alpha \sigma \right] \alpha \gamma \rho = 0 \dots \dots (2-9)$$

2계 조건은

$$\frac{\alpha^2 U^L(W_0)}{\alpha L^2} = D = \int_{-1}^{\infty} \int_{-1}^{\infty} [u'(W_1^\wedge) (\sigma^\wedge - \gamma) \{ (y + \gamma^* y + c + \rho C) / (L + y)^2 \} \\ g(\sigma^\wedge, \gamma, \rho) + \int_{-1}^{\sigma^\wedge} u''(W_1) (\sigma - \gamma)^2 g(\sigma, \gamma, \rho) \alpha \sigma \\ + \int_{\sigma^\wedge}^{\infty} u''(W_1) (\gamma^* - \gamma)^2 g(\sigma, \gamma, \rho) \alpha \sigma] \alpha \gamma \cdot \alpha \beta < 0 \dots \dots (2-10)$$

이 된다. (단,  $W_1^\wedge$ 은  $\sigma = \sigma^\wedge$ 일 경우 나타낸다.)

대부자가 위험중립적인 경우  $U''(W_0) = 0$ 이므로, 식(2-10)에서 두번째, 세번째 항이 각각  $\sigma_0$ 가 되고 따라서 첫번째항이 (-)가 되는데,  $y, c$ 가 양이므로  $(\sigma^\wedge - \gamma^*) < 0$ 이 되어, 대출공급조건이 충족된다. 즉, 차입자가 대출을 얻으려면  $\gamma^* > \sigma^\wedge$ 이 되어야 하며 양인 담보와 지분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대부공급이 이자율 뿐 아니라 차입자지분과 담보의 변화에도 영향받

음을 말해준다.

또한, (2-9)식에서 대출공급함수가 성립하므로 (2-9)식을 담보  $c$ , 지분  $y$ 로 미분하면

$$\frac{\alpha L}{\alpha C} = \frac{A}{D} = \int_{-1}^{\infty} \int_{-1}^{\infty} u'(W_1^{\wedge}) (\sigma^{\wedge} - \gamma) \{ (1 + \rho) / (L + y) \} g(\sigma^{\wedge}, \gamma, \rho) \alpha \gamma \cdot \alpha \rho / D \cdot (2-11)$$

이 되어,  $\sigma^{\wedge} - \gamma < 0$ 이므로,  $A < 0$ 이되어 (2-11)식은 양이 된다.

또한,

$$\frac{\alpha L}{\alpha y} = \frac{M}{D} = \int_{-1}^{\infty} \int_{-1}^{\infty} u'(W_1^{\wedge}) \sigma^{\wedge} \gamma (1 + \sigma^{\wedge}) / (L + y) \{ g(\sigma^{\wedge}, \gamma, \rho) \alpha \gamma \alpha \rho / D \cdot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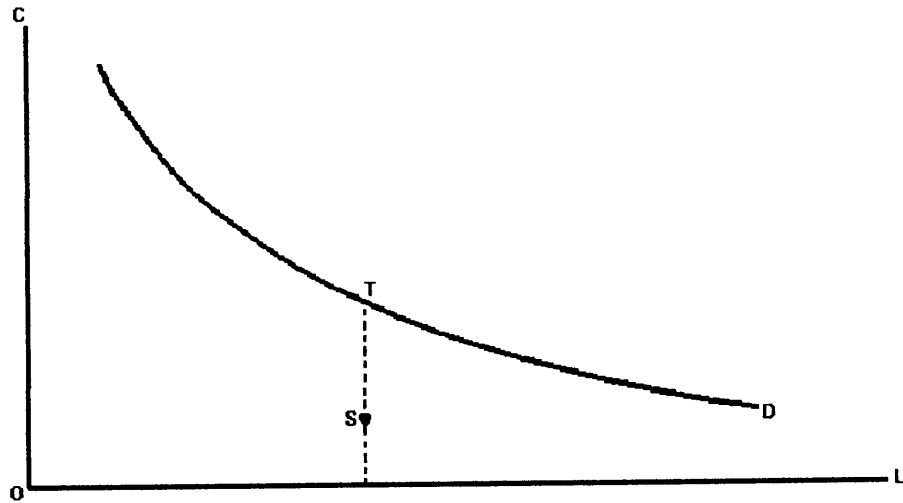
에서,  $M < 0$ 이므로 (2-12)식 역시 양이 되어 결국 더 많은 담보와 지분을 제공해야 더 많은 대부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위험기피적 대부자의  $\gamma^* = \sigma$ 인 경우에도 담보나 지분증가는 대출증가로 연결되고  $\gamma^* \neq \sigma$ 이더라도 위험기피적 대부자의 선택적 투자수익과 담보수익율이  $i$ 로 같은 경우  $(\gamma^* - i) / (1 + i) < (C + y) / L$ 이라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gamma \neq \sigma \neq \rho$ 인 경우라도 만일  $\{ \rho \geq \sigma \text{ for all } \sigma \leq \sigma^{\wedge} \} = 1$  and  $(C + y) > 0$  이거나, 만일  $\{ \rho \geq \sigma \text{ for all } \sigma \leq \sigma^{\wedge} \} = 1$  and  $\rho > \sigma \text{ for some } \sigma \leq \sigma^{\wedge}$  이라면 위의 결과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자율, 담보, 지분의 조합으로 결정되는 대부수요는 이자율제약만으로는 신용할당이 나타나지 않으며 세가지 모두가 효과적으로 제약되어야 할당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외생적 제약의 존재에 관계없이 신용할당은 균형이 될 수 없다.

(그림 4)에서는  $(r, y)$ 는 주어진 것으로 보고  $C$ 와 대부수요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신용할당이 성립하려면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S점이 대부자의 최적점이 되어야 하나 T점도 S점과 같은 수준의  $\gamma, y$ 를 보이고 신용거래량도 S점과 같지만 더 많은 담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대부자는 T점을 더욱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신용할당은 사라지게 된다.



〈그림 4〉 담보를 고려한 신용할당

그러므로, 신용할당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림 4)에서 담보에 대한 제약이 존재해야 하며, 나아가 이자율, 담보, 지분을 모두 고려한 차원에서는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제약이 요구되며 이때 비로소 균형신용할당이 성립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신용할당의 존재는 대부자의 시장경쟁력, 특히 독점적 행동과는 무관하게 결정된다는 것이다.

### 3. 은행의 중소기업대출현황과 문제점

#### 3.1. 중소기업대출현황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에 있어 불리한 처지에 있다. 내부유보·감가상각 등 내부자금이 대기업에 비해 불충분할 뿐 아니라 대외신용도·담보력·교섭력 등이 취약하기 때문에 외부자금조달 역시 용이하지 않다. 그 동안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구조를 살펴보면 내부금융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 외부금융의존도가 60%를 넘고 있다.

외부자금조달 중에서도 직접금융의 비중이 미미하고 특히 회사채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은 전체 자금조달의 1.4%에 그치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주식 또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미달되고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비용(발행이자율, 지급보증료, 부대비용 등)이 은행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보다 높으며, 회사채시장이 보증사채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담보력이 부족하고 지명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표 2〉 중소기업 자금조달비중 추이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내부금융	11.9 (9.1)	36.9 (39.7)	27.5 (32.3)	25.8 (35.1)	33.7 (43.4)	37.9 (56.0)
외부금융	88.1 (90.9)	63.1 (60.3)	72.5 (67.7)	74.2 (64.9)	66.3 (56.6)	62.1 (44.0)
직접금융	11.3 (13.5)	12.9 (22.2)	10.6 (16.9)	9.0 (16.0)	8.1 (10.8)	7.8 (21.4)
회사채	0.7 (6.5)	6.4 (15.4)	1.8 (12.3)	2.8 (12.7)	1.4 (6.2)	1.4 (15.5)
간접금융	37.2 (45.5)	29.9 (32.9)	38.2 (29.7)	35.5 (28.4)	46.2 (34.9)	29.8 (29.3)
금융기관차입금	29.7 (28.8)	26.0 (31.6)	32.1 (22.3)	25.3 (18.2)	36.0 (21.7)	23.9 (9.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 ) 내는 대기업임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따라서 중소기업의 외부금융은 대부분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금융기관 차입중에서도 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은 10%를 상회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sup>12)</sup>

〈표 3〉 중소기업 차입금의 조달처별 잔액비중 동향

(단위 %)

	1989	1990	1991	1992	1993
은행	77.7	78.5	78.9	78.3	78.7
은행이외금융기관	11.6	11.7	11.4	11.9	11.7
회사채	7.8	7.0	6.7	6.9	6.9
사채	1.8	1.7	1.9	1.8	1.7
기타	1.1	1.1	1.1	1.1	1.0

자료 : 국민은행, 중소기업금융 실태조사, 각년도

이러한 은행편중현상은 중소기업이 낮은 신용도에 따라 다양한 제2금융권의 자금에 접근하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고 통화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은행자금의 특성 때문에 금융긴축기에 자금조달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금조달의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차입금리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다소 불리

12) 김대식, 중소기업 지원금융 제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소기업 연구원, 1955. 5. p. 31.

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중소기업대출관련 금리가 완전자유화되어 있지 않은 부문에 있어서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으며 자금조달금리보다는 자금규모의 확대와 필요시 적기대출이 외부자금조달에 있어 주요과제라 보여진다.

〈표 4〉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입금 평균이자율 비교

(단위:%)

	80	86	91	92	93
대기업(A)	15.10	10.84	10.70	11.41	10.83
중소기업(B)	17.52	11.69	12.71	13.01	11.89
B-A	2.42	0.85	2.01	1.60	1.06

주 : 차입금평균이자율 = (지급이자 + 할인료)/(단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 100  
 자료 : 산업은행, 재무분석 각년도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규모는 80년대의 30~40%대에서 점차 증가하여 90년대 들어와 50~60%에 이르고 있으나 90년대 이후 그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표 5〉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실적

		1987	1989	1991	1992	1993	1994
잔액기준	총대출	320,071	462,015	649,061	745,028	834,067	992,976
	중소기업 대출	137,579 (43.0)	231,350 (50.1)	368,560 (56.8)	419,722 (56.3)	494,722 (59.3)	583,425 (58.8)
	순증기준	21,116	105,797	108,816	95,967	89,039	158,909
순증기준	중소기업 대출	14,891 (70.5)	60,041 (56.8)	68,514 (63.0)	51,161 (53.3)	74,571 (83.7)	89,132 (56.1)

주 : 예금은행(주택, 농수축협 및 외은지점 제외) 총원화대출금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은행경영통계, 각 년도

〈표 5〉에서 보듯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금리자유화 폭의 확대, 총액한도대출제의 중소기업위주운용, 표지어음제도 도입 등으로 점차 증가해 왔으나 금융실명제관련 긴급자금의 집중지원으로 대출비중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95년을 제외하고는 그 증가속도가 크게 높아지지는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규모는 중소기업의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sup>13)</sup> 산업구조고도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역할 증대를 고려해 볼 때 보다 확대해야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비중과 비교해 보면 뚜렷해진다.

13) 1993년 현재 중소기업의 국민경제비중은 산업체수기준 98.9%, 종업원수기준 68.9%, 부가가치생산기준 50.3%에 이르고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중(잔액기준)이 50%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일본도시은행의 경우 80년대 중반부터 이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고, 90년대 이후에는 70%를 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경우 90년대 이후 대기업의 자금조달이 직접금융시장에서 보다 유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이유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그 외에도 정부가 중소기업지원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민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온데도 크게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6〉 한·일 양국 민간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추이(연말기준)

	1978-84	85-88	1990	1991	1992	1993	1994(4)
시중은행(한국)		30.6	44.9	46.8	46.6	49.7	49.9
도시은행(일본)	49.7	70.4	71.3	71.7	71.9	69.9	70.1
지방은행(한국)		65.8	73.9	74.3	74.9	77.4	76.7
지방은행(일본)(1)	69.7	72.3	81.3	81.9	82.0	78.3	78.2
일반은행(한국)(2)		35.8	50.7	52.3	51.9	55.1	55.1
전국은행(일본)(3)	50.9	58.4	70.4	70.8	71.7	69.0	69.3

주 : (1) 제2지방은행(상호은행의 후신) 포함  
 (2) 외은지점 제외  
 (3) 도시은행, 지방은행, 제2지방은행, 신탁은행, 장기신용은행  
 (4) 일본의 경우 1994.9월말 현재 실적

자료: 한국은행, 은행경영통계, 각 년도

여기에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무대출비율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비율이 일부은행에 있어서는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표 7〉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조정 추이

(단위 %)

	1965.4	1980.10	1986.4	1992.2	1994.5
시중은행	30	35	30	45	45
중소기업은행	90	90	90	90	90
동남대동은행	-	-	-	90	80
지방은행	3	55	80	80	70
외국은행국내지점	-	-	25	35	35

자료: 한국은행, 은행경영통계, 각 년도

이는 정책금융의 단계적 축소와 UR 보조금상계조치협정에 따른 직접지원감소 등과 함께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을 보다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의 유형에 있어서도 신용대출의 비중이 작고 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약 57%가 부동산담보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직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수집력이 미약하여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업성과 성장성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물적 담보력이 부족하면 은행차입이 용이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8〉 중소기업의 은행차입시 담보조건별 구성비

	1989	1990	1991	1992	1993
부동산	61.2	57.2	58.0	58.3	57.1
신용	10.2	18.5	19.1	19.0	20.4
신용보증	24.7	20.8	19.5	19.6	20.0
지급보증	3.5	2.9	2.8	2.9	2.2
기타	0.4	0.6	0.6	0.2	0.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국민은행,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

### 3.2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할당행태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정부의 정책적인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강제적으로 특정부문·기업에 배분하는 타율적 신용할당을 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타율적 신용할당은 정부의 재정이나 한국은행, 각종 기금으로부터 자금이나 이차보전을 받아 경제계획상의 우선지원부문과 한국은행 재할적격업체에 대해 저금리로 배분되어졌다.<sup>14)</sup> 이 타율적 신용배분의 자금이 일반은행의 경우 60%에 이른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UR협상과 정책금융축소정책에 따라 차츰 줄어들고 있다. 타율적 신용배분에 동원된 자금외의 은행의 나머지 자금은 여신관리규정의<sup>15)</sup> 영향을 받으나 대체로 유가증권보유와 은행이 수익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업종별·기업별 대출공급의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된다.

이 경우 은행이 여신대상기업에 대한 각종 정보를 분석하여 당해기업의 재무상태와 사업전망, 은행과의 관계,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이러한 기업의 신용평가는 한국의 기업체 종합평가표 작성요령에 따른다. 그 외에도 은행은 여신대상기업의 자기은행에 대한 기여도 즉, 은행의 자금조달이나 자금운용 및 수익증대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여 여신결정에 반영한다. 이런 방법의 의해 대출이 결정된 기업에 대해서도 구속성예금이나 담보설정 등이 요구되어 지기도 한다.

14) 지원자금의 종류와 배분유형에 따라 기업체 선정이나 자금금리 결정, 신용평가와 채권보전 방법, 사후관리의 방법 등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15)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에는 여신운용세칙,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운용세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9〉 고객직접기여도 평가표

자금운용 및 수익				자금조달 및 원가					
대출금	기타대출			차입자금					
투 자	인수사채			수 신	당좌예금				
	투자주식				가계종합예금				
외환수익	수출실적				보통예금				
	수입실적				저축, 자유저축예금				
	외환수수료				기업자유예금				
기타수익	팩토링수수료				정기적금, 기타				
	보증료				수입부금				
	신탁보수료				양도성예금증서				
	B.C 기타수수료				중소기업금융채권				
신용보증기금출연금					비원가성자금				
				신탁(은행계정활용)					
자금기여액				예금지급준비금					
				자금의존액					
				순수익					
구분	전전분기( /4분기)			전분기( /4분기)			연간( ~ )		
수익기여율	%	등급	급	%	등급	급	%	등급	급
대출금총수익율	%			%			%		
자금기여율	%	등급	급	%	등급	급	%	등급	급

자료: 중소기업은행, 여신실무가이드, 1994

이상과 같은 은행의 대출행태를 볼 때 우리나라 은행대출에 있어서는 정책적 강제에 의한 타율적 신용할당외에 다양한 형태의 신용할당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기업평가에 있어 주요한 항목이 되는 자기자본비율은 차입자지분에 의한 신용할당을, 총자본순이익율은 차입자 수익분포특성에 의한 신용할당을, 유동비율은 상환가능성에 의한 신용할당을, 예금총액은 요구불예금에 의한 신용할당 및 L\*예금에 의한 신용할당을 은행이 대출공급에 있어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종합평가표의 작성이나 고객기여도산출은 신용기준에 의한 신용할당과 대부수요에 근거한 신용할당을 나타내고 있다. 그 외에도 일반적인 상환불능위험에 의한 신용할당이나 불완전정보와 도덕적 위험에 근거한 신용할당뿐 아니라 금리규제에 따른 이자율 제약에 의한 신용할당 등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거의 모든 형태의 신용할당이 은행대출과정에서 실행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는 다양한 금융규제하에서도 최적의 경영성과를 거두려고 했던 은행의 합리적 대출결정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지며 금융자유화이후에도 일부는 은행의 효율적 자산운용을

위해 존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은행대출공급에 있어 실제 어떠한 신용할당이 주로 발생하는지 불명확하다. 또한 기업규모별로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구속성예금부과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있어 신용할당행태 역시 다소 다른 양태를 나타냈음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계량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해 보았다. 자료입수가 가능한 1982년부터 정책금융축소가 본격화되기 전인 1992년도까지의 1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sup>16)</sup>

〈표 10〉 기업규모별 신용할당 행태비교분석

	1982-1984	1986-1988	1990-1992
	VARIABLE COEFFICIENT	VARIABLE COEFFICIENT	VARIABLE COEFFICIENT
대기업	토지·건물총액 1.0462 현금·예금총액 0.9061 매출액증가율 98702.9 자기자본비율 -227186.7 정책더미변수(수출) 0.1611	토지·건물총액 0.4389 현금·예금총액 1.6184 총자본이익율 -1943981 자기자본비율 -622683.2 정책더미변수(수출) 0.0928 정책더미변수(중화학공업) 8157456.0	토지·건물총액 0.3711 현금·예금총액 1.7912 총자본이익율 8041.2 자기자본비율 -549336.1 정책더미변수(수출) 0.1660
중소기업	토지·건물총액 1.1174	토지·건물총액 1.0589 자기자본비율 -69574.2 정책더미변수(수출) 0.1107	토지·건물총액 1.3724

기업규모별 신용할당행태를 비교해 보면 〈표 10〉와 같이 대기업의 경우 담보, 대고객관계, 상환가능성 등에 의한 신용할당과 수출지원 성격의 타율적 신용할당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한 신용할당이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중소기업은 거의 담보에 의한 신용할당만이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수익성·성장성 등 재무적 특성이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주로 담보에 의존해서만 차입이 가능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타율적 신용할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경우 전기간에 걸쳐 수출지원 성격의 타율적 할당이 유의적으로 나타나며 1986~1988년 기간에는 중화학공업지원성격의 타율적 신용할당도 유의적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986~1988년 기간에 있어서만 수출지원적 타율적 할당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 은행 대출에 있어 자율적 할당이든 타율적 할당이든 대기업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그리고 은행신용할당에 있어 자기자본비율이 미치는 영향은 전 부문에 걸쳐 부의 크기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있어 은행차입에의 의존이 크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그 계수값은 80년대 후반에 매우 높았다가 그 이후 점차

16)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전계논문, 한국은행대출시장의 신용할당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4.2. 참조

낮아지고 있어 직접금융시장의 성장에 따라 간접금융의존도가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3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있어 문제점

#### 3.3.1 규모 및 금리·만기의 부적절성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은행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다. 또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자체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이는 은행의 자금조달능력이 제2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데다가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대출보다 유가증권의 보유를 늘린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중소기업의 은행대출금을 장단기로 나누어 보면 장기차입비중이 전체의 36%선을 유지하다가 경기회복과 함께 설비투자가 시작된 93년에는 42.2%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직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단기 운전자금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특히 상업어음할인에 의한 판매대금조기회수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연간 100조원에 이르는 외생매출채권의 현금화-상업어음할인, 팩토링금융 등-율이 25%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단기대출과 할인어음의 대부분의 대출기간이 적격어음의 경우에 있어 대체로 3개월 내외로써 실제 중소기업어음의 만기가 120일 이상되는 경우가 60%를 넘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다. 그 결과 자금 압박을 가져오고 도산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95년중 중소기업 부도업체의 부도원인 조사에서 판매대금회수부진에 의한 부도비율이 22.3%를 차지해 이러한 상황을 입증해 주고 있다.

〈표 11〉 어음의 원자재구매대금 및 제품판매대금 회수상황

(단위 %)

	60일 미만		60~89일		90~119일		120일 이상		평균기일	
	93	94	93	94	93	94	93	94	93	94
원자재구매대금	2.3	1.3	7.7	12.4	25.0	23.1	65.0	63.2	128	130
제품판매대금	2.3	2.6	9.3	7.3	20.3	19.0	68.1	71.1	136	140

자료 :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 1995, 통상산업부

이러한 전반적인 중소기업대출부진현상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있어서의 비현실적인 저금리가 그 원인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실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아직 규제금리가 많고 9.0~11.5.%사이의 밴드제로 운용되고 있다. 이는 부대비용을 감안하여도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높은 부도에 따르는 리스크프리미엄(risk premium)을 감안한다면 매우 낮은 금리라 할 수 있다.

〈표 12〉 부도원인의 유형별 분류

(단위 %)

항 목	주원인(제1원인)	부원인(제2원인)
판매부진	28.4	19.6
판매대전회수부진	22.3	3.1
투자실패	15.9	11.9
원가상승 및 마진율하락	14.0	27.6
관련기업도산	7.2	8.8
방만경영	4.8	14.0
재무관리소홀	4.2	10.4
기타	3.2	4.6
합 계	100.0	100.0

자료 : 신장룡 외 2인, 최근중소기업부도의 원인과 대책, 중소기업은행, 1995.

그 다음 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한은차입비율의 감소이다. 1994년 3월부터 정책금융축소 과정으로 종전의 건당 자동채할인이 총액한도제로 바뀌었다. 우선 1995년 1월부터 금리 5%로 지원되는 재할인 자금의 차입비율이 50%에서 45%로 줄어들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표지어음제도를 도입했으나 표지어음매출에 의한 자금조달의 경우 순수조달원가만도 13%에 이르기 때문에 이 재원을 상업어음할인으로 운용하기는 어렵다. 그 외에도 재할인 적격업체선정제도의 비효율성, 저금리로 인한 통화긴축시 우선대출감축, 상업어음할인시 담보를 요구하는 관행 등이 할인규모를 위축시키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표 13〉 중소기업의 은행에서의 어음할인시 담보조건

(단위 %)

	1985	1990	1993
	중소기업평균	중소기업평균	중소기업평균
부 동 산	75.8	47.6	47.4
신 용	5.0	29.0	32.2
신용보증	7.7	22.3	16.9
지급보증	0.8	0.7	3.5
기 타	10.7	0.4	0.0
합 계	100.0	100.0	100.0

자료 : 박상학 외 1인, 영세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국민경제리뷰, 1995.4.1

### 3.3.2 담보대출위주의 비효율성

중소기업대출에 있어 담보대출의 관행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그 비중은 아직 60~70%에 이르고 있다. 이 중에서 부동산담보와 같은 물적담보대출이 50%내외,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의 지급보증대출인 보증대출이 15%정도 차지하고 있다. 담보대출은 통상적으

로 1.3~1.5배 이상의 담보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부동산 담보가치액은 시가에 비해 매우 낮으며, 1인이상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든지 담보설정과 관련된 제비용의 차입자 부담, 그리고 기업도산시 연체와 관련된 제비용부담 등 차입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은행이 모든 자금중개과정의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양상으로 사전적 심사기능, 사후적 채권관리기능, 신용리스크부담기능을 포기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담보대출은 인플레가 진행되는 경제에서는 채권의 가치보전이 용이하여 은행에 의해 선호되지만 지나친 담보대출관행, 특히 부동산담보대출은 오히려 부실채권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담보대출이 갖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담보대출은 우량기업을 선별하지 못하고 위험도가 높은 기업을 선호하게 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발생시킬 수 있고 또한 차입자로 하여금 위험애호자로 행동하게 하는 유인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즉 기업의 부채차입비율이 높으면 과중한 이자부담이 발생하고 이에따라 기업은 부동산등 고수익자산을 이용한 재태크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sup>17)</sup>

둘째, 물가하락과 경기후퇴의 불황기에는 기업의 상환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때 담보 가치도 하락하여 담보처분에 의한 채권회수도 어려워진다. 결국 부동산담보는 은행이 필요로 할 때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은행의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1980년대말 금융긴축을 계기로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경기가 냉각되자 보유 자산의 가치하락과 부동산관련 대출의 부실화에 따른 불량채권으로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상업은행과 저축기관의 도산건수가 1980년대의 21건에서 1991년 359건으로 크게 증가하기도 하였다.<sup>18)</sup> 그리고 최근 일본의 버블붕괴와 은행파산과정에서도 부동산 담보대출의 불안정성을 볼 수 있다.

셋째, 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높여 수지를 악화시킨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저당권설정에 따른 부동산감정비용, 등록세, 수탁채권매입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되기 때문이다.

〈표 14〉 부동산 담보 대출시 금융 부대비용의 산출 예

(대출금 1억원,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항 목	비 용 액	산출 근거
등 록 세	30	근저당 설정액(대출금의 150%)의 0.2%
교 육 세	6	등록세의 20%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75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근저당설정액의 1%, 동채권 할인 매각시 순손실(50%)
법무사 비용	10	
계	121	

자료 : 중소기업은행

17) 김성만이은모, "우리나라기업의 자금조달·운용분석",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0.3. p. 25.

18) 문종진·강춘구·이준수, "최근 주요국 경기순환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3.7.

넷째, 부동산담보대출은 유동성이 낮으므로 대출금의 회수에 장기간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대출의 장기 고정화가 초래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지급불능시에는 담보물건의 가치저하 및 경락가격의 하락 및 법정소송비용, 제관리비용, 처분자산에 대한 국내 공과금, 임금의 우선 공제 등으로 대출채권의 100%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sup>19)</sup> 그리고 도산기업을 정리하는 대신 법정관리·금융기관관리 등의 방법으로 기업정상화를 도모한다면 담보권행사는 제한 받게 되고 대출금회수는 기업정상화 이후로 지연되게 된다.

다섯째,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선호는 기업의 부동산 투기나 과다보유를 초래하여 기술혁신, 신제품개발, 마케팅강화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재무구조상 고정자산이 비대해지고 유동자산이 부족하여 흑자도산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 3.3.3 신용평가기능의 취약성

우리나라는 과거 담보대출위주의 금융관행과 금융시장규제로 인해서 신용정보에 대한 수요·공급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1980년대 들어 신용정보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전국은행연합회 산하에 신용정보관리위원회를 두어 기업정보 및 어음, 수표의 부도, 대출금 연체와 같은 금융기관 불량거래정보와 각종 예금개설정보 등이 수집교환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기업정보는 대상기업체에 대한 전 금융기관의 여신 및 부채현황, 비은행금융기관과의 여신성격을 띤 거래현황, 기업체 현황 및 결산재무제표가 집중구축되어 있는데 주로 제1금융권과 일부 제2금융권의 여신거래현황위주로 되어 있어 실제 신용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체현황 및 신용조사자료는 미흡하다. 이를 보완하기위해서 기업체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1983년 한국기업평가(주)를 시작으로 한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등이 설립되어 신용분석활동이 늘어났으나 신용평가에 대한 일반의 인식부족, 평가회사의 규모의 영세성, 영업기반 취약성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 문제,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위주의 신용분석에 따른 평가미흡등으로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도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있어서는 신용평가가 더욱 어렵다. 즉, 중소기업은 업종별·업태별, 규모계층별로 상이점이 많아서 기업의 신용과 사업수익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심사비용이 높고 그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대출관리비용이 높게 된다.

그리고 대출금의 효율적회수와 향후대출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대출사후관리로서의 신용조사도 그 횟수가 적고 기업의 경영 및 신용상태, 사업전망 등의 형식적 조사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신용평가 및 신용대출의 미흡성은 대부분의 신용조사가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한 재무분석에 치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재무제표는 부외부채나 부외거래등 진실된 기업정보가 충분히 반영·공개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그 원인이 된다.<sup>20)</sup>

19) 도남원, 신용대출 활성화방안, 금융경제, 1993.5. p. 21.

20) 증권감독원에 의해 감사보고된 감사결과 시정요구를 받은 기업이나 체재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 또는 외부 감사인 등의 숫자가 매년 80개 내외기업, 150명 내외의 공인회계사, 30명 내외의 외부감사기관에 달한다.



그 외에도 만성적인 초과자금수요에 의한 우량고객유치 필요성의 감소, 금리규제에 의한 리스크프리미엄확보 곤란, 기업재무구조의 취약성에 따른 상환위험 증가 등이 신용대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은행의 신용평가에 의한 대출기능이 취약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한 보증대출이라 할 수 있다. 신용평가기관을 통한 보증대출은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체신용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기업의 상환불능시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이루어지는 대출을 말한다. 이는 취약한 은행의 신용평가기능을 보완하여 신용대출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위변제율이 지나치게 높아 신용보증기금이 신용평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소득보조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표 15〉 한국·대만·일본의 대위변제율 비교

(단위 %)

	1981	1985	1987	1991	1992	1993
한국	4.0	4.2	4.1	3.0	7.2	5.7
일본	2.6	2.4	2.0	0.8	1.3	--
대만	0.3	1.1	1.5	0.6	0.4	--

주 : 대위변제율 = 대위변제액/신용보증잔액 × 100

자료 : 신용보증기금, 신용자금통계연보, 1993

### 3.3.4 중소기업지원금융제도의 비효율성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정부의 저리자금지원은 은행의 자금조달원가를 낮추는 효과를 갖고 있으나 한국은행 재할인제도에 의한 금리 5%의 저리자금 지원은 총액한도대출방법으로 바뀌었고 95년 이후 지원비율이 45%로 낮추어졌으나 한도계산방식이 전전월 실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할인대상금액의 40%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1)</sup> 정부재정에서 지원되는 중소기업자금은 극히 미미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4년 실적으로 2.5%에 불과하다. 이 비율도 90년대이후 꾸준히 상승해온 결과이나 일본의 8.06%에 비교해 비율이나 규모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은행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원가상승과 저리자금지원규모의 축소가 은행의 저금리 중소기업대출에 있어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체제가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은행의 대출업무와 효과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중소기업대출증대에 유익하다. 특히 WTO출범에 따른 국내산업지원제도 개편과 UR보조금상계조치협정에 따라 정부보호적 산업지원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개편하는 과정에서 정책금융이 축소되면서 금지보조금과 허용보조금을 구분하여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할 필요성이 생겼다.

21) 중소기업은행의 95년 1월실적 기준, 전계서, p. 23.

그런데 현재의 중소기업 지원금융의 종류를 보면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상업어음 재할인, 무역금융을 위시하여 한은의 재할인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중소기업 수요자금, 중소기업공해방지금융, 중소 소재·부품업체 운전자금, 지방중소기업자금,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중소기업 수출설비금융 등이 있으며 재정자금으로 지원되는 농공지구입주 중소기업지원자금, 그리고 각종 정책기금에 의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 창업지원기금,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원자금 등 수십종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형식의 금융지원제도가 있으나 자금과 공급기관면에서 중복되어 있으며 지원자금의 성격, 용자대상, 용자조건면에서 일관성·전문성을 상실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전략적 분야에 집중되지 못하고 다부문에 소액으로 지원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지원 전문금융기관도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 지방금융기관, 상호신용금고, 각종 기금 등으로 되어 있어 전문화되지 못한 각종 금융기관 및 기금이 소액으로 다수의 중소기업금융을 취급함으로써 정보비용과 거래비용이 과다하게 중복 지출되고 있다. 특히, 일부 기금의 경우에는 여신심사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거의 무조건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금융의 중복·다기화는 정부가 일시적 필요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각종 지원책을 신설·개정하고 중소기업 금융기관을 증설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금융지원정책은 양적인 확대에 치우친 나머지 전문화를 통한 일관성있고 효과적인 금융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 4.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효율화 방안

### 4.1 중소기업대출관련 ALM운동

자율화와 개방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금융산업에 있어서는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이익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증대되게 되었고 수익성 및 위험관리의 강화가 은행경영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자율화나 개방화의 속도가 늦기 때문에 아직 금리변동위험, 가격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유동성위험 등 제반위험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나 이미 금리자유화조치로 금리변동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금융시장개방과 금융기관간 업무영역확대조치로 경쟁이 심화되면 예대마진이 축소될 것이며 이에 따라 자금관리업무와 이익관리업무의 연계강화가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위험조정자기자본이익의 극대화를 도달하기 위하여 자산·부채 종합관리(ALM)의 도입이 필요하게 된다.

은행의 자산관리는 이익극대화를 위해 대출로부터 최대의 수익을 거두고 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통제하며 동시에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여 긴급한 현금수요에 대해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또한 부채관리 역시 이익극대화의 목표달성을 위해 가장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과제가 된다. 자산·부채 종합관리는 이와같은 자산과 부채 관리를 체계적으로 연관시켜 이익극대화를 달성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은행의 위험, 즉 신용위험, 금리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유동성위험에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은행의 ALM 운용 일반화에 맞추어 장차 은행이 중소기업금융에 비교우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대출에 관한 ALM을 따로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중소기업대출에 필요한 자금조달 운용에 관한 정보들을 따로 취합하여 중소기업대출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줄이고 중소기업대출에 있어 수익을 극대화의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소기업대출을 위한 자금조달은 저리의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등 일반예금 증가와 아울러 허용보조금의 범주에 속하는 정부의 중소기업지원금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자금운용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강화하여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적용의 폭을 넓혀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대출자금의 고유한 특성-만기구조, 금리, 상환이행도-을 감안하여 장단기 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조절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있어 위험조정후 수익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대출관련 ALM을 독자적인 기구에 의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을 효율화시키는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 4.2 중소기업 신용평가 모델 개발·활용

은행의 대출에 있어 신용평가는 지금까지 대체로 기업의 재무상태의 평가에 치중해 있고 사업현황 및 전망에 대한 평가 역시 전망보다는 지금까지의 성장율에 관련된 지표에 비중이 크다. 예를 들어 기업체 종합평가표의 경우 재무관련 비율이 기업평가에 있어 50%의 비중을 갖고 있고, 사업현황을 나타내는 활동성, 성장성, 생산성이 20%의 비중을 갖고 있다. 여기에 비해 사업전망지표(추정매출이익율, 추정매출액증가율, 거래조건 및 판매전망, 품질 및 기술개발상태 등)는 10%의 비중을 불과하며 은행과의 관계지표(거래신뢰도, 경영상태 등) 10%, 노사관계나 후생·근로조건을 포함하는 경영형태에 관련된 지표는 5%의 비중을 불과하다. 또한 은행고유의 기업체평가에 있어서는 대상기업이 당해은행의 대출에 따른 이자수익, 외환수익, 기타 각종 수수료 수익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리고 각종예금을 통하여 은행의 자금조달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따라 등급을 확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기존의 신용평가는 대기업에 비해 대체로 재무상태가 불량하고 사업실적이 뒤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불리한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사업기간은 짧으나 우수한 기술력으로 미래의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이나 은행과의 경영상담에 지속적으로 응하고 부도발생이 없어 거래신뢰도가 높으며 노사관계나 근로조건이 양호한 안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평가는 높게 내려지지 않게되어 성장성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장애가 된다. 그리고 은행의 고객기여도에 따른 자체기업평가는 자금사정이 유리한 기업이 보다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용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새로이 성장하는 우량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모델이 따로 개발되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고유평가모델은 신용평가에 있어 기본적으로 양적요소보다 질적인 요소를 보다 중시하고 품질 및 기술수준과 신제품개발능력 등 잠재적 성장능력을 중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높은 상환불능위험을 고려해 업종별·기업별 부도원인과 부도발생직전의

기업경영행태변화 등에 관한 자료를 취합하여 일반화하여 평가요소에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의 특성상 경영주의 업력이나 경영성실성, 경영진구성, 노사관계, 환경변화에의 대응력, 자금관리능력 등에서 기업마다의 고유한 정보가 그 기업의 신용평가에 중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신용평가모델에 이러한 요소를 반영하며 나아가 업종별·기업별 신용평가모델의 구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4.3 주거래은행기능의 강화

우리나라의 주거래은행제도는 은행과 기업간의 자율적인 고객관계에 의하여 기존에 형성되었던 '주된 여신은행관계'가 1974년 금융단협정에 의해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협정으로 체결됨에 따라 제도화된 것으로 1982년 은행법 개정시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그 내용은 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기업 정보 및 여신정보의 집중관리, 재무구조개선지도 및 기업경영지도, 기업투자 및 부동산투자승인 등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 제도의 운영으로 기업은 계열기업군에 대한 은행별 여수신한도내에서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할 수 있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비투자나 자금수급관리를 해 올 수 있었다. 은행 역시 계열기업군 및 대상기업체에 대한 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각 기업체별 전담심사에 의해 대출심사를 하고 장기적 거래에 의하여 고객기업에 대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거래은행제도는 여신관리제도 내에서 대기업계열기업군에 대한 경제력 집중과 편중여신의 시정, 재무구조의 개선 등을 목표로 운용되어와 규제적 성격의 여신관리제도로서 자리잡게된 경향이 강하다. 이는 주거래은행이 최대대출은행이 아닌 경우가 많았고, 1980년대 이후 주거래은행의 대출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주거래은행의 대출점유율 평균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거래은행과 기업과의 관계는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긴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up>22)</sup>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기능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적극적 의미로서의 주거래은행관계란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자로서의 관계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의 실물경제력제고를 위한 제반노력을 지원하고, 재무건전성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기능을 은행이 담당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즉 주거래은행은 거래은행들에 의해 선임된 관찰자(delegated monitor)로서 기업의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및 관리자의 기능을 하며 기업에 대한 협력자로서의 위험분산기능과 정보제공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업체에 대한 경영컨설팅제공, 기업직원의 연수, 은행직원파견 등의 직원교류프로그램도 계획·실행해야 할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 축적된 정보와 노하우가 은행의 중소기업금융에 있어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4.4 신용보증기금의 효율적 활용

22) 안종길, 금융환경변화와 은행-기업관계의 발전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5.5. pp. 90~96.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있어 부족한 신용평가능력과 담보대출관행을 개선하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담보력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을 확대하고 재정에서의 출연증대와 함께 보증기금의 재정기반을 확충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보증기금의 신용평가능력을 제고시키고 보증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다. 그 외에도 보증기금에 대한 출연확대를 통해 보증료의 차등화를 통한 불필요한 보증수요의 감축, 신규기업에 대한 보증기피시정, 기존보증기업에 대한 관습적 보증태도지양 등의 보증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신용보증기금의 건실한 운영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담보력을 보완해주며 나아가 은행 자산의 비효율적 소모를 방지해 줄 것이다.

#### 4.5 상업어음할인 증대

상업어음은 진성어음의 경우 그 자체가 담보능력이 있고 유동성이 크므로 은행의 중소기업금융에 있어 중요한 대출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근 할인금리가 완전자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은재할인비율이 낮아져 은행이 점차 할인규모를 줄이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금리자유화가 진행되면 어음에 대한 신용등급평가를 보다 세분화해서 차등금리를 적용하면서 할인규모를 증대시키는 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운전자금공급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고객관계가 강화되어 주거래은행의 기능을 제고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진성어음의 할인은 중소기업의 실제거래를 활성화시켜 중소기업의 성장과 이에따른 수익성제고를 지원하므로 장기적으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있어 규모확대와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5. 결 론

금융자유화와 개방화에 따라 은행의 경영정책변화는 시작되었고 그 결과 은행의 수지악화가 일차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은행의 수지악화는 고금리수신상품의 개발과 여신경쟁에 의한 것으로 그동안 정부규제하의 타율적인 경영에서 은행 스스로 자금의 조달과 운영을 책임지는 자율경영의 상황으로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율경영하의 은행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서둘러 갖추어야 할 경영목표는 우선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달성, 조직·인력의 재정비를 통한 생산성 향상, 업무다각화를 통한 범위의 경제 실현등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은행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능은 은행경영의 리스트럭처링을 통한 생산성향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고유한 은행경영업무를 보다 고도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은행업무의 모든 측면이 자율화된 상태에서 은행의 기본적 수신·여신활동이 보다 생산성높게 이루어져 여기서 다른 은행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은행의 업무다각화에 따른 여타 경영활동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은 기본적 수신·여신활동에 있어 영업행태의 커다란 변화를 이루어야 하며 특히 정부규제하의 경영에 따라 그 기능이 현

저하게 둔화된 여신활동의 재정비·고도화가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요소라 할 수 있다. 여신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대출심사기능을 육성시켜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다음으로는 각 은행이 비교우위를 가질수 있는 대출부문을 발굴·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일반적인 추세로 대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이 직접금융위주로 바뀐다는 것을 고려할 때 모든 은행에 있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활동의 강화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아직도 다양한 규제 및 지원제도가 존속하고 있으며 향후 금융개방이후에도 그러한 제도가 일부 유지되리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최적의 경영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은행대출의 중소기업 중시정책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다양성과 이질성이 크고 각 기업에 대한 정보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도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활동의 제약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중소기업대출의 여러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대출의 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적인 준비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있어 주된 문제점은 우선 중소기업대출의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금리가 아직 경직적이라 점, 만기구조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들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신용평가능력이 미흡하여 주로 담보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도 중소기업대출의 비효율적인 요소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제도가 비효율적이어서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에 활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과 최근에는 자율화에 따른 은행의 자금조달의 원가 상승요인이 중소기업대출을 제약하는 요소로 거론되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은행의 중소기업대출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첫째, 중소기업대출에 관련된 자금조달과 운영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소기업부문 ALM을 은행이 적극적으로 구성하여 운용하는 것, 둘째 중소기업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중소기업의 미래의 성장가능성에 비중을 둔 중소기업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활용하는 것, 셋째 지금까지의 규제를 위한 주거래은행제도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실물경쟁력제고노력과 재무건전성 제고노력을 지원하는 협력자로서의 주거래은행기능을 강화하는 것, 넷째 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을 늘려 신용보증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은행의 중소기업신용평가능력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위험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다섯째 상업어음할인금리 자율화와 더불어 할인 규모를 증대시켜 중소기업과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대고객관계를 증진시키는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안중길, 금융환경변화와 은행·기업간 관계의 발전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5. 5.  
 김동원, 은행대출시장에서의 정부·은행·기업관계의 재모색, 한국경제연구원, 1992. 1.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기업의 재무행태와 금융관행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92. 12.  
 지동현, 우리나라 은행의 자산부채종합관리, 한국금융연구원, 1993.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5.

- 기업은행, 한국의 중소기업, 1995.
- 김기서, 국내은행의 유가증권투자현황분석 및 효율화 방안, 국민경제리뷰, 1995. 4. 24.
- 박상학·김정인, 영세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 실태분석 및 개선대책, 국민경제리뷰, 1995. 4. 10.
- 장지중, 최근의 중소기업 부도와 정책대응, 나라경제, 1995. 5.
- 장지중,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나라경제, 1995. 11.
- 이수호, 한국 은행대출시장의 신용할당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2.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7회 중소기업주간행사보고서, 1995.
- 김대식, 중소기업 지원금융 제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1995. 5.
- 중소기업연구원, 일본의 금융자유화와 중소기업금융, 1995. 9
- 정건용,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방안-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1994. 9.
-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금융정책 세미나, 1995. 5.
-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자유화와 중소기업금융의 활성화, 1994. 3.
-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 지원과제에 관한 심포지움 종합보고서, 1992. 9. 17.
- 한국은행, 일본 재정부문의 중소기업금융 지원현황, 보도자료, 1995. 3. 3.
- 中小企業廳計劃部金融課編, 中小企業金融の新潮流, 同友館, 平成2年6月.
- 堀内昭義·福田慎一, 日本のメインバンクはどのような役割はたしたか?, 金融研究, 日本銀行金融研究所, 昭和62年 10月.
- 日本銀行, 金融機關ALMの現況と課題, 日本銀行月報, 1995. 9.
- Arzac, E.R., Schwartz, R.A., & Whitcomb, D.K., 'A Theory and Test of Credit Rationing : some Further Results', *A.E.R.*, Sep., 1981, pp.735-737.
- Azzi, C.F. & Cox, J.C., 'A Theory of Test Credit Rationing : Comment', *A.E.R.*, Dec. 1976. pp.911-91.
- Blackwell, N.R. & Santomero, A.M., 'Bank Credit Rationing and the Customer Relation', *J.M.E.* 19, pp.21-219.
- Freimer, M. & Gordon, M.J., 'Why Bankers Ration Credit', *Q.J.E.*, Aug. 1965, pp. 397-416.
- Fried, J. & Howitt, P., 'Credit Rationing and Implicit Contract Theory',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12, No.3, 1980, pp.471-487.
- Hodgman, D.R., 'Credit Risk and Credit Rationing', *Q.J.E.*, May, 1960, pp.258-278.
- Jaffee, D.M., *Credit Rationing and Commercial Loan Market*, John Wiley & Sons, 1971
- Jaffee, D.M & Modigliani, F., 'A Theory and Test of Credit Rationing', *American Economic Review*, Dec., 1969, p.851.
- Kane, E.J. & Malkiel, B.G., 'Bank Portfolio Allocation, Deposit Variability and the Availability Doctrine', *Q.J.E.*, Feb., 1965, pp.113-134.
- Jaffee, D.M., 'A Theory and Test of Credit Rationing : Further Notes', *A.E.R.*, June, 1972, pp.484-488.
- Jaffee, D.M., *Credit Rationing and the Commercial Loan Market*, John Wiley & Sons Inc., 1971, p. 16.
- Modigliani, D.R., "The Deposit Relationship and Commercial Bank Investment Behavior",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 1961, pp.257-268
- Smith, V.L., 'A Theory and Test of Credit Rationing : Some Generalizations', *A.E.R.*, 1972, pp.477-483.
- Stiglitz, J.E. & Weiss, A., 'Credit Rationing in Marktes with Imperfect Information', *A.E.R.*, June, 1981, pp.393-410

